

롯데백화점 '리조이스 캠페인'으로 사회공헌

롯데백화점이 여성 우울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상담·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2017년 '리조이스(Rejoice)라는 자체 사회공헌 브랜드를 론칭, 여성 우울증 연구 프로그램, 점포 현장 상담 운영, 우울증 예방 등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롯데백화점 여직원 수는 3천440명으로 남성 직원(2천72명)보다 1천명 이상 많다. 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하는 브랜드 판매직원도 대부분이 여성이며, 주요 고객층도 여성인 만큼 여성 발병률이 높은 우울증 예방에 나선 것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 직원들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웃는 얼굴로 고객을 응대하는 '감정노동자'임과 동시에 가정에서 육아를 담당하는 '가사 노동자'가 대부분"이라며 "이들 대부분은 우울증에 매우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나만의 향수 만들면서 스트레스 날려요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최근 '리조이스 캠페인'의 일환으로 아로마 테라피스트를 초빙해 아로마의 활용법, 종류, 효능과 관련한 다



1 아로마 향수만들기 2 여성우울증 치료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공헌프로그램 '리조이스 힐링 크루즈'에 참가한 롯데백화점과 협력업체 직원 36명이 출발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한 강의를 듣고, 여성 직원과 고객이 함께 나만의 아로마 향수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롯데백화점 광주점 '리조이스 카페'의 전문 심리 상담사가 함께 참석해 '리조이스 캠페인'을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2



3



4



5



6

3 리조이스 쿠킹클래스 4 여성 복지자 간담회
5 롯데백화점 리조이스 캠페인 여성 힐링 커뮤니케이션
6 플라워 테라피

롯데백화점 광주점 내 '리조이스 카페'는 직원이 편히 쉬면서 심리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카페형 심리상담소로, 지역 유통업계 최초로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이며, 외부 전문기관에서 파견된 심리 상담사가 상주해 심리 케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리조이스 카페'에서 육아, 가정 문제 등 털어놓기 힘든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는 것이 직원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1년 새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57%나 증가할 정도로 인기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리조이스 카페'와 함께 쿠킹 클래스, 명사 초청 힐링 특강, 커피 테라피 등 여성 고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박상영 롯데백화점 광주점장은 "많은 분이 '리조이스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아울렛, 쿠킹 클래스·양초 만들기 '인기'
광주지역 롯데아울렛도 '리조이스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롯데아울렛 수원점은 여성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쿠킹 클래스를 진행했다. 전문 요리강사를 초청해 문화센터에서 진행된 최근 행사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행복이 가득한 케이크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직원은 직접 만든 케이크에 나만의 레터링을 새겨넣어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는 이벤트를 열었다.

롯데아울렛 남양주점도 최근 여성 직원과 함께 나만의 천연 양초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천연 양초의 종류별로 효과가 다르지만, 심지 타는 소리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 숙면과 심신 안정에도 효과가 있어 직원들의 참여도가 아주 높았다. 김성경 롯데백화점 사회공헌팀장은 "백화점은 여성 고객과 여성 직원의 비중이 높아 여성 우울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하고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